

# 전남 솔라시도 구성지구 스마트팜 조성사업 '흔들'

### 해남군 공모사업 참여 포기...국비사업 사실상 물 건너가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구상 변화 없어" 독자 추진 의지

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인 솔라시도(옛 J프로젝트) 구성지구에 추진 중인 '스마트팜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방향을 급선회하게 됐다. 당초 정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를 통해 추진하려 했지만, 해남군이 응모하지 않으면서 정부 공모사업 참여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6일 전남도와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점단 농업업 단지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대상지 공모를 내년 1월 초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농식품부 공모에 앞서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4일까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자체 공모를 벌인 결과, 나주시와 고흥군 등 2곳이 선정됐다.

전남도는 이날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공모 시군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27일 현장방문, 28일 대면평가 등을 거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 전남도 대표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참가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1차 공모에 전남 대표로 나섰다가 탈락했던 해남군은 애초 재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군은 해남군 산이 면 구성리 일대 2095만9540㎡(634만평) 규모에 스마트팜 컨셉으로 태양광 발전시설(50만평), 스마트 팜 클러스터 조성(30만평),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등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

는 것은 일방적 특혜라는 지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솔라시도 구성지구 특수목적법인(SPC)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이 구성하고 있는 30만평(100ha) 수준의 대규모 스마트팜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방향 전환은 불가피해졌다. 농식품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 교육과 취·창업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실증단지가 핵심시설로 조성하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대규모 스마트팜 클러스터를 지향하는 구성지구 입장에서 선도시업으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남군이 사업 참여를 포기하면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하게 됐다.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관계자는 "구성지구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지정됐다면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스마트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큰 구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솔라시도 구성지구는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대 2095만9540㎡(634만평) 규모에 스마트팜 컨셉으로 태양광 발전시설(50만평), 스마트 팜 클러스터 조성(30만평),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등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올해 경제정책 성과와 과제 등을 평가하는 동시에 포용성장 등 내년도 경제기조를 놓고 자문위원들과 의견을 교환한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 "추격형 경제" 한계...혁신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해야"

###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주제 김광두 "적폐 청산, 기업에 부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선도적으로 창출해 산업화를 이끄는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안 되고 있다"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려면 필요한 것은 역시 혁신"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마무리 발언에서 "추격형 경제"로 우리가 큰 성공을 거뒀는데 이제 그 모델로 가는 것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혁신은 사람에 대한 투자이고, 중소기업 혁신도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 중소기업이 되어야 하고 그게 우리의 과제"라며 "한류·K-팝이 보여주는 창의성을 보면, 제대로 하면 굉장히 창의적인 능력을 갖춘 민족"이라고 강조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부의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국 경제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15분에 걸친 보고에서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우리 산업이 처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한계를 지적했다는 시각도 있다. 김 부의장은 또 "적폐 청산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게끔 해서 기업들이 기업하려는 분위기를 조금 더 잘 만들어줘야 하며 기업이 느끼기에 노조의 불법행위 등이 좀 과도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의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렸던 보수 학자로 지난해 3월 문재인 캠프에 합류,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부의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했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연일 쓴소리를 해오다 결국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그는 이날 회의 전 "오늘이 마지막인가"란 기자의 질문에 "그렇지 않겠냐"며 부의장직에서 물러날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이 만류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러지는(만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는 "그것은 김보좌관의 생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대검, 김태우 수사관 감찰결과 오늘 발표

검찰이 27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위원회 김태우 검찰수사관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26일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조치된 김 수사관 감찰 결과를 27일 공개할 예정이다. 감찰결과, 징계가 결정되면 검찰 내부 감찰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경정계의 경우 서울고검 보통징계위에, 중징계라면 대검 보통징계위에 부처진다. 대검 예규상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정계는 감봉·견책이다.

범죄현의가 성립된다고 판단되면 징계 처분과 별개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수

사 의뢰로 결론이 날 경우 김 수사관을 피고발인으로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이를 넘겨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검은 이와 관련, 최근 골프장 7-8곳과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를 친 KT 대관업무 담당 간부 1명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고, '셀프 청탁' 경위 확인을 위해 유영민 과기부 장관을 방문조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도저히 도달 할 수 없는 자연의 위대함



김은영의 '그림 생각'

(251) 송고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그동안의 보람과 성취보다는 종종 살아내지 못한 삶의 여정에 대한 반성과 회한이 더 밀려오는 것 같다.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나만의 의식이 필요한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마음이 심란하거나, 마음을 다잡고 싶을 때 찾아가는 영암 월출산은 부모님의 고향이자 선산이 있는 곳으로 둘러보기만 해도 마음의 위안이 된다. 남녘의 순한 평야지대에서 갑자기 높이 솟아오른 험한 월출산의 위

용과 압도감은 숨이 멎는 듯한 감동을 선사하면서 그 순간만큼은 현실을 초월하게 해주는 것 같다.

자연에 매혹되는 순간, 우리가 갖게 되는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서양 근대미학에서는 '숭고미'라 부르기도 한다. 특히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숭고를 중요한 미적 범주로 부각시켰는데, 숭고감은 자연의 크기와 위대함에 대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여도 그 한계에 도달할 수 없을 때 생겨난다고 정의했다.

칸트는 높이 솟아 급방이라도 내려앉을 듯한 절벽, 번개와 우레를 품고 유유히 다가오는 하늘, 높이 피어오른 먹구름, 파도가 치솟는 끝없는 대양의 위력에 대비하면 그것들에 대항하는 인간의 능력은 보잘 것 없이 작은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그 대상들이 인간의 정신력을 끌어올리고 내부에 존재하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저항 능력을 발휘하게 만들어



프리드리히 작 '바닷가의 수도사'

자연의 절대적 힘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카스파 다비트 프리드리히(1774~1840)의 '바닷가의 수도사'(1809~10년 작)는 숭고를 바라보는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그림으로 꼽힌다. 무한히 펼쳐져있는 어두운 밤하늘과 바다,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게 표현된 인물의 크기를 대비하고 있는데 등을 돌리고 있는 인물을 통해 우리도 그와 함께 자연의 웅장한 장관, 숭고의 순간 속으로 들어가 그 숭고의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같다. <광주비엔날레정책기획실장·미술사박사>



호남권 사립대학 연구비 수주 1위 (전국 201개 대학 중 33위, 2018년 공식)

73년 역사의 저력으로 인재의 가치와 미래의 힘을 키우는 대학



2019학년도

# 조선대학교 신입생 정시모집

원서접수 2018. 12. 29.(토) ~ 2019. 1. 3.(목) 18:00

입학상담 062.230.6666

"혁신으로 새롭게 변모 하겠습니다"